

반년간의 유학이 끝나고

경북대학교

성혜지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경북대학교에서 온 성혜지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부터 오차노미즈여자대학에서 교환학생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환학생으로 합격했을 때 기쁘면서도 한편으로 걱정이 들었던 날이 아직도 기억 납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파견이 점점 미루어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정말 유학이 가능한 것인지, 도쿄에 갈 수 있는 것인지 불안함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21년 2학기가 되어서 온라인으로 오차노미즈여대의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학생 입국이 제한되고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수업을 위해 힘 써주신 선생님 분들과 학교의 관계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에서의 유학이므로 한국 학교의 수업과 별다른 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 했던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적응되지 않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일본어로 말하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에서 이론중심의 일본어를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어로 말해본 경험이 정말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도 온라인으로 유학이 가능한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 연습 없이 갑자기 일본어로만 말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서 처음에는 어려웠 습니다. 그러나 여러 수업들을 통해서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다른 학생들의 발언을 들으면서 저도 점차 익숙해져갔습니다. 그 학생들은 모두 저와 같은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상황과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 전공과 전혀 상관이 없는,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분야의 수업도 들어보았습니다. 힘들어서 도중에 포기해버릴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조별활동을

하면서 일본인 학생들과 소통하고 함께 과제들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에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오차대생 분들 덕분에 무사히 끝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학교에서 유학생들을 만나면 제가 받았던 배려를 나누어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학기가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유학 생활에서 가장 저에게 도움 되었던 것은 현재 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오차노미즈여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